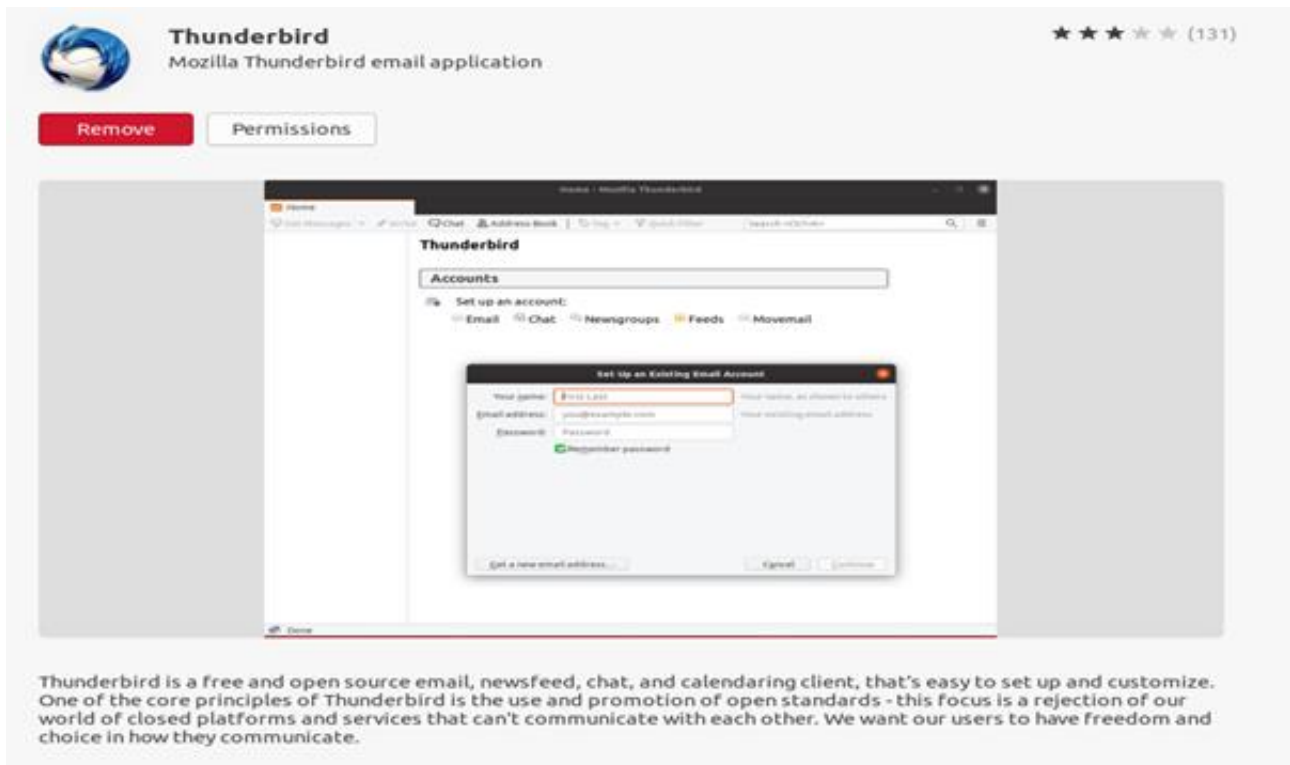


11 번째 프로그램 - Thunderbird

2019102129
소프트웨어융합학과
정성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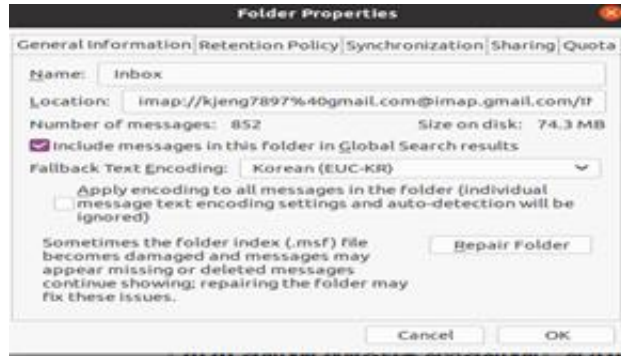


설치한 프로그램은 thunderbird 이다. 평소에 학교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많이 주고 받았기에,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설치하게 되었다.

그러나 처음에 생긴 문제는 이메일의 제목이 깨져서 나온다는 것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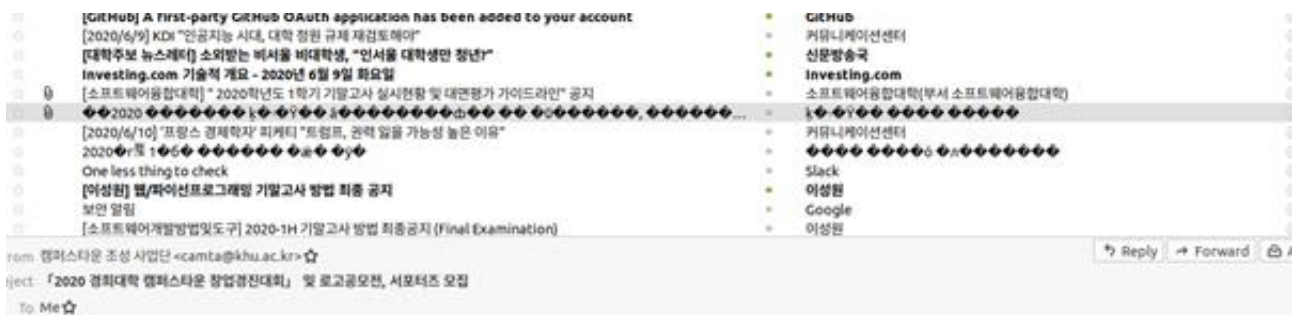


이를 해결하기 위해 받은 메일함에서 속성을 들어가 encoding 을 korean(euc-kr)로 바꿨더니



해결되었다.

여전히 메일 박스함에서는 제목이 깨져서 나오지만,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제목이 더이상 깨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.



이렇게 앞으로 메일은 thunderbird 로 무사히 잘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.

느낀점

Thunderbird 를 사용하는 느낌은 평소 윈도우에서는 기본으로 하는 outlook 이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과는 사뭇달랐다.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그러지 우선 프로그램의 ui 가 윈도우의 outlook 에 비해서 뒤쳐져있다는 느낌을 받았다. 그러나 메일을 누르면, 바로 밑에서 확인 가능한 점은 장점으로 다가왔다.